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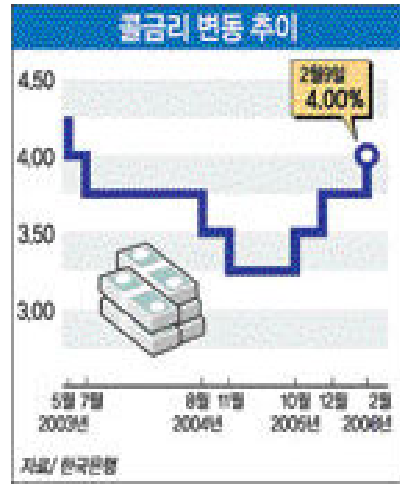
이성태 한은총재 “통화정책 시장 예측 가능하게”

콜금리 인상 여부 관심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선제적 금리정책을 시사하면서 오는 7일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 정책금리 조정의 템포가 과거보다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언급에서 과거 몇차례의 정책금리 조정때 타이밍을 놓쳐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을 엿볼 수 있다.

재가 물러나고 박승 총재가 취임하면서 제때 정책금리를 손대지 못했으며 5월에 가서야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지만 이미 거품은 부풀어 오를대로 오른 뒤였다.



▲콜금리= 금융기관 영업 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보험·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이다. 콜금리 증가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는 징검다리식 통화정책을 펴왔다. 한편 이 총재가 “지난해 말부터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관찰하고 있다”며 “한은은 자체적으로 금융안정 분석국과 조사국 등을 통해 부동산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한은의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신학기 교육물가 급등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

광주·전남도 전국과 비슷한 추세



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 광주·전남은 전월인 2월보다는 각각 0.3%, 0.4%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신학기를 맞아 각종 학교의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랐지만 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공급 증가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 납입금과 학원비 등 각종 교육비는 많이 올랐으나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3월중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로 지난해 3월보다 2.0%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지난해 8월 2.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월인 2월에 비해서는 0.5%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도 각각 2.0%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동향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 광주·전남은 전월인 2월보다는 각각 0.3%, 0.4%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 버려진 휴대폰

번호이동에도 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폐휴대폰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폐휴대폰 집하장에서 직원들이 수거된 휴대폰을 중고휴대폰용, 수출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휴대폰 판매량은 1천700만대에 달해 1천300만대의 폐휴대폰이 발생되었고 이중 520만대 정도만 수거, 처리되었다.

직원 연봉 1위 ‘GS홀딩스’ 8,200만원

작년 상장사 가운데 GS홀딩스 직원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사·화학·건설업체 연봉 ‘두둑’=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GS홀딩스로 작년 직원 한 사람에게 평균 8천200만원을 지급, 전년도의 5천만원에 비해 64%나 급등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1인당 연봉이 각각 7천452만원과 7천140만원으로 2위와 4위를 차지, 지주회사 직원들이 고액 연봉자임을 입증했다.

지주회사 은행 ‘두둑’ 삼성전자 80위 ‘추락’

이 5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SK(6천603만원)과 삼성정밀화학(6천400만원), 코오롱유화(6천378만원), 호남석유(6천180만원), LG석유화학(6천166만원), 한화석유(6천140만원), 대한도시가스(6천100만원), SK가스(5천900만원), 부산도시가스(5천900만원), 한국셀렉스(5천860만원) 등 무려 11개사가 30위 안에 들었다. 또 태영(6천519만원)과 대우건설(6천440만원), 대림산업(5천945만원), GS건설(5천867만원) 등 건설업체 4곳도 30위 안에 포함됐다.

직장인 근로소득 증가율

환란이후 최저치 기록

민간 저축률도 감소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민간 저축률은 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변 똬’보다는 ‘싼 똬’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 고성장기와는 달리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피용자보수는 지난 78년에는 전년대비 42.5%나 급증하는 등 지난 96년까지는 매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이어왔으나 97년(5.68%) 이후에는 한 번도 10% 이상 증가한 적이 없었다.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뉴에이스㈜    | [광주]하나호텔레스토랑직원실 담당원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4/05 | 031-267-1862  |
| 디엘케이㈜    | 하이마트 내 가전판매 담당원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4/05 | 011-611-8477  |
| KMS제약㈜   | [광주]영업지원 및 사무관리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4/05 | 032-329-7557  |
| 인형정보통신   | 서류작성 및 전산업무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07 | 062-511-0099  |
| 연우이탈부    | 전화응대 및 컴퓨터전산입력 담당 직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07 | 062-672-7733  |
| 천년약속     | 영업관리 사무원                     | 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4/08 | 010-9357-5694 |
| E-라이프매거진 | 편집디자인                        | 고졸/경력무관  | 1,000~1,200 | 04/08 | 062-959-5555  |
| 대명하이텍㈜   | 지재담당 남직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08 | 062-953-6444  |
| 인원산업     | 경리 - 건설회사 경력자                | 초대졸/경력3년 | 회사내규        | 04/10 | 062-655-4840  |
| 동양생명보험   | 2006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10 | 062-226-4904  |
| 세원       | 생산직(OP,OC) 및 생산관리직, 총괄관리, 영업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12 | 061-369-6300  |
| 지주건설     | 토목, 건축 비석채 영업직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12 | 055-761-7666  |

정몽구 회장 배당금 329억원

주요 그룹총수 중 3년 연속 1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주요 그룹총수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많은 연말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실물거래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상위 10대 그룹총수가 12월 결산 상장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총액은 8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룹총수들의 12월 결산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액은 전년도보다 76.18% 증가한 6조9천9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가치’ 삼성 43위

파이낸셜타임스 조사, 1위는 MS

전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이며 삼성은 43위에 해당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자체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신문은 소비자시장정보업체 밀워키 브라운 윌터의 ‘브랜드’ 자료를 활용한 공동조사 결과 MS 브랜드가 시장가치 620억3천900만달러로 1위로 나타났고, 이어 제너럴일렉트릭(558억3천400만달러), 코카콜라(414억600만달러) 순으로 평가됐다.

성기능 강화 식품 ‘자신감로 365’ 출시

건강기능식품 벤처기업 (주)씨에스엔팜이 한방 성기능 개선·강화식품인 ‘자신감로 365’를 출시했다. 100% 순식물성 생약으로 제조된 이 제품은 식약청 KGLP 인증기관의 임상실험에서 1.8배의 성호르몬 증가와 성기능 강화결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인위적으로 혈류를 하체에 집중시켜 발기를 유도함으로써 심장소근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존 제품과 달리 오장육부 정화 및 원기회복과 혈액순환 촉진을 통해 성기능 효과를 1년여 지속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칼로리·설탕 없는 ‘코카콜라 제로’ 출시

한국 코카콜라(주)(www.cocacola.co.kr·대표 아더 반 벤슨)가 아시아권에서 처음 코카콜라의 상쾌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와 설탕을 없앤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붉은색 대신 블랙을 주 색상으로 채택, 보다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웠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출시 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올 1월 호주에서는 출시 한달만에 250만켤 기준으로 1억개를 판매되기도 했다.

경제계 인사

◇(금융생명) ◇본사팀장 ▲복합TM팀 이상도 ▲개인금융TF팀 천상경 ◇지점장 ▲대구중앙 이광국 ▲강동 정치성 ▲서대문 반홍래 ▲동진주 김 건 ▲완주 김준호 ▲전주 이막래 ▲효자 이봉중 ◇TM지점장 ▲초록 박영성 ▲한마음 허 용 ◇AM지점장 ▲동부 이성수 ▲서부 김용환